

승리제단은 천도교 줄기로 이어진 민족종교

민족종교 승리제단은 천도교 줄기

승리제단의 설립자 조희성님이 2003년 6월 6일 본부제단에서 설교하실 때 당신의 출생과 외할아버지의 일화를 소개하였는데,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학자이자 미국 유학하였던 외할아버지인 조희성(曹熙星)님의 이름을 직접 지어줄 만큼 외손자를 극진히 아겼습니다. 외할아버지인 외손자가 신미생(1931년생) 양띠 달(음력 6월), 별수 날(28일) 새벽(4시)에 태어난 것을 보고, 외손자가 세상을 다스릴 '으뜸 원(元)'자의 금운(金運)을 타고난 비범한 인물임을 직감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어린 외손자를 업고 30리 길이 되는 김포와 부평을 오가며 영어로 말씀을 들려주셨고, 외손자에게 당부하시기를 "희성아, 내 말을 잘 기억해라. 너는 절대로 앞으로 엄청난 큰일을 할 사람이다. 그런데 이 말은 너희 아버지나 엄마한테도 얘기하지는 마라. 이걸 말했다가는 너는 죽는다. 너는 이 세상에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라고 했습니다.

최제우 선생이 창시한 동학이 2대 교조 해월 최시형 선생을 이어 3대 교조 의암 손병희 선생에 이르러 천도교(天道教)로 개편되었는데, 바로 조희성님의 외할아버지가 천도교를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외할아버지가 믿던 그 줄기로 이어진 민족종교가 열석자의 성전(聖殿: 하나님의 몸)이 되는 『영생교 하나님과 성회 승리제단』이라고 유불선 합일의 주인공이 설명하신 것입니다. '외손자가 앞으로 세상을 전부 다스리고 세상을 손아귀에 쥐고 좌우지(左之右) 한다'라는 외할아버지의 예견대로 20세기 후반에 이긴자 구세주로 나오셔서 천지개벽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저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의 대적 마귀가 사람 가운데서 구세주가 나온 줄 알고 착각하고 대홍수를 일으켜 사람들을 전부 없애버리면 구세주도 죽겠거니 하고 대홍수를 위한 기후환경 조성이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귀의 계략을 눈치채고 당대의 의인 노아 속에 숨어 들어가서 방주를 예비하여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학이 되는 성경을 믿는 일반 기독교에서는 노아홍수가 난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에 대해서 이긴자 조희성님이 다음과 같이 반박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순간들었나? 미쳤지? 미친 하나님이나 사람을 죽이려고 홍수를 만들지, 그래 안 그래요? 홍수를 내린 게 마귀가 한 거야! 아시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나발 부는 것들이 그게 마귀 새끼들 이야? 사람 새끼야?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어요 수십억 인구가 살았어. 노아홍수가 일어나서 그게 다 수장되어서 죽었어. 아시겠어요?" (2001-01-15 말씀 인용)

육천년간

마귀를 피해 다니신 하나님

서학이라고 불리는 기독교(천주교)나 동학의 맥을 이어받은 천도교조차도 하나님의 기막힌 사정을 모르고 있습니다. 산에 여우는 거쳐할 굴이 있고 공중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



▲ 최시형 선생이 향년 72세로 순도(殉道) 직전의 모습

건만; 정작 하나님은 이 세상에 머리 둘 곳조차 없이 가련한 신세로 연명하면서 6천 년간 마귀를 피해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숨어지내야만 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조희성님을 점령하는 데 성공하시어,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권세를 이긴 구세주 하나님으로 완성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하나님이고 걸어오신 발자취를 오늘날 우리에게 사실 그대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육천년 전서부터 아담과 해와 두 하나님께 미쳤지? 미친 하나님이나 사람을 죽이려고 홍수를 만들지, 그래 안 그래요? 홍수를 내린 게 마귀가 한 거야! 아시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나발 부는 것들이 그게 마귀 새끼들 이야? 사람 새끼야?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어요 수십억 인구가 살았어. 노아홍수가 일어나서 그게 다 수장되어서 죽었어. 아시겠어요?" (2001-03-28 말씀 인용)

하나님이 6천 년간 마귀를 피해 숨어지낼 때 이 사람, 저 사람으로 옮겨 다니신 것입니다. 노아 할아버지 속에도 계셨고 아브라罕 속에 계신 하나님이 장자상 속에 따라 이삭과 야곱으로 옮겨지다가 아브라罕의 증손자 단(한민족 시조단군)에 옮겨지는 것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단군의 자손이 되는 단지파 사람들 을 이스라엘 소라 땅에서 멀리 해돋는 동방의 나라 한반도에 숨겼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조상이 단지파의 시조 단군이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지내는 한민족의 혈통을 타고 숨어지낼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하나님의 기만전술에 마귀가 감쪽같이 속아 이스라엘의 유다지파 혈통을 타고 하나님에 계승되는 줄 알고 히틀러, 무솔리니 등 그들 속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가스로 수백만 명을 죽이고 씨를 말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1864년 제1대 교조 최제우가 참수형을 당한 뒤, 동학도들이 모진 탄압을 피해 지하로 은신했습니다. 교단을 책임지게 된 최시형(1827-1898)은 관헌에 쫓기는 몸이 되어 300여 년간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는 한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전국의 산간벽지를 떠돌며 은신했습니다. 늘 언제든 떠날 수 있도록 간단한 짐을 싼 보따리를 곁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최보따리'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수운 최제우가 작성한 동학의 핵심교리인 포덕문, 논학문, 수덕문, 불연기연, 용답가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동경대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도망치는 와중에도 이 보따리를 목숨처럼 지키며 경전을 간행하고 교리를 체계화했습니다. 즉, '최보따리'는 동학의 정신적 자산을 지켜낸 수호자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하단에 계속)

(이어서)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듯이 동학의 제2대 교조 인 해월(海月) 최시형은 스승인 수운(水雲) 최제우가 창시한 동학의 사상적 씨앗을 받아들여, 이를 구체적인 삶의 철학이자 실천 윤리로 꽂피운 인물입니다.

예컨대 해월의 가르침인 십무천(十毋天)은 동학에서 양천주(養天主)를 위한 수양의 방법으로 제시한 글로써, 해월 최시형 선생은 수운 최제우의 시천주(天主: 인간 속에 내재하는 한울님을 잘 모셔야 한다는 뜻) 사상을 한층 더 깊게 헤아려 양천주(養天主: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초월적 존재인 한울님을 길러야 한다는 뜻) 사상으로 진일보시킨 것입니다.

십무천(十毋天)

- (내 안에 계신) 한울님을 속이지 말고 정직해라
- 한울님을 거만하게 대하지 말고 공손하라
- 한울님을 다향하게 하지 말고 안전하게 하라
- 한울님을 어지럽게 하지 말고 간편하게 하라
- 한울님을 일찌 죽게 하지 말고 길게 살려라
- 한울님을 더럽히지 말고 깨끗하게 하라
- 한울님을 주리게 하지 말고 배부르게 하라
- 한울님을 무너지게 하지 말고 반듯하게 하라
- 한울님을 싫어하게 하지 말고 기쁘게 하라
- 한울님을 비굴하게 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라

동학의 한울님은 "내 안에 씨앗처럼 깃든 지극한 기운이자(內有神靈內有真命), 만물을 살게 하는 우

주적 생명력(外有氣化內有真命)"입니다. 인간은 이 한울님을 내 몸에 모시고 있음을 깨닫고(待天主시 천주), 이를 잘 길러내어(養天主양천주) 만물과 조화를 이루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동학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동학의 제3대 교조 손병희 선생에 이르러 천도교의 종지인 '사람이 곧 하나님'이라는 인내천 사상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인내천 사상은 원래 흥의인간의 이념에 내재된 사상입니다.

승리제단이 천도교 줄기로서의 민족종교라고 말씀하신 조희성님은 서학의 기독교(천주교)가 받드는 성경에서 '사람들이 신(神)들이며 지존자(하나님)의 아들들이라(사편 82편 6절)'라는 인봉된 구절을 발표함으로써, 인간이 흡으로 빛어진 괴물이라는 허구적인 이념을 타파하고 동학을 빛내고 있습니다.*

중생제도(衆生濟度) 삼십훈(三十訓)

The 30 Lessons for Saving People

-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라.
- Regard everybody as my body.
 - 나를 의식하지 마라.
- Do not be conscious of me.
 -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 Do not hate people.
 - 화(怒)를 내지 마라.
- Do not be angry.
 - 싸우지 마라.
- Do not fight.
 - 못마땅하게 생각하지 마라.
- Do not be disgruntled.
- 음란한 마음을 품지 마라.
- Do not have an obscene mind.
 - 욕심을 부리지 마라.
- Do not be greedy.
 -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 Do not covet others' things.
 - 누구든지 하나님처럼 여겨라.
- Regard everybody as my God.
 - 상대방을 존중히 여겨라.
- Honor your opponent.
 - 희생적인 마음을 가져라.
- Have a sacrificial mind.

13. 영생의 확신을 가져라.

- Have the conviction of immortality.

14. 죽음을 생각하지 마라.

- Do not think about death.

15. 범사에 감사하라.

-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16. 영생의 희망을 품어라.

- Hope for eternal life.

17. 형제의 사정을 내 사정처럼 여겨라.

- Think of the circumstances of your brother as mine.

18. 상대방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 Think of the other person's sin as my sin.

19.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겨라.

- Think of the pain of your opponent as your pain.

20. 무슨 일이든지 무례히 행치 마라.

- Do not be constrained by anything.

21. 온전한 마음과 행동을 하라.

- Act with integrity.

22. 상대방을 비방(譏謗)하지 마라.

- Do not slander your opponent.

23. 상대방에 대하여 참견하지 마라.

- Do not interfere with your opponent.

24. 상대방의 장점만 보라.

- Look at the other person's merits.

25.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마라.

- Do not think about evil.

26. 선한 것만 생각하라.

- Think of only good things.

27. 형제의 말을 하지 마라.

- Do not speak about your brother.

28. 형제의 잘못을 흥보지 마라.

- Do not speak ill of your brothers' fault.

29. 누구한테든지 배우고자 하는 학구적 인 자세를 가져라.

- Have an academic attitude to learn from everybody.

30. 상대방의 말을 관심 있게 들어주라.

- Listen to the other person's ideas.*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9]

"기도문은 항상 습관적으로 해야 한다"

여러분들은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습관적으로 이 멸마경(滅魔經)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라는 의식의 생활이 움직일 때마다 그 생각을 포착하여 영생기도법(永生祈禱法)에 의해 기도를 하면 그 마귀가 죽습니다.

도 다 죽는 것입니다.

이 기도문을 외우는 것이 여러분들이 입으로 해도 되고 마음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가거나, 일을 하거나, 앉아 있을 때도, 밥 먹을 때도 늘 이 기도가 저절로 나가야 합니다. 천당 들어갈 자격자는 이 기도가 항상 습관적으로 나갑니다. 그것이 저절로 안 나가는 사람은 결코 천당에 못 들어갑니다.*

10가지 인격장애

이기는 삶

인격장애는 개인의 사고방식, 감정 조절, 대인관계, 행동 양식 등에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장애는 개인의 삶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조기에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인격장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7. 강박 인격장애: 이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은 의심이 많고, 경직되어 있으며, 유머 감각이 부족하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불안감을 느낀다.

8. 회피성 인격장애: 자존감이 낮고 남들에게 비판받거나 놀림 받는 상황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으며,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 사람 만나기를 피한다. 타인과 본인의 감정을 지나치게 관찰하는 경향이 있다.

9. 반사회적 인격장애: 이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타인의 감정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집단이나 사회의 규범을 무시하고, 공격적이고 충동적이며 후회나 죄책감 같은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10. 의존성 인격장애: 자신감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야 한다. 남의 조언 없이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하고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상의 인격장애의 증상에 대하여 우선 본인이 자신을 이해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 그에 맞는 치료와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중생제도 삼십훈은 신자들의 신앙심을 고취시키고자 내리신 구세진인(救世眞人) 조희성님의 옥중서신에서 비롯되었다.